

세계 인권 전문가들 광주에 모여 빈곤·불평등 고민

10월 4~7일 '세계인권도시포럼'...장하준 런던대 교수 기조연설 광주·서울 쪽방촌 대안 논의...팬데믹 후 이주민 건강 등 주제 회의도

10월 세계 인권 전문가들이 광주에서 모인다. 광주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세계 인권도시포럼'(이하 광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Human Rights Cities Responding To Poverty And Inequalities)'다.

첫째 날 개회식은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경제석학으로 불리는 장하준 런던대학교 교수가 온라인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회장 겸 은평구청장, 카롤리나 즈드로보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 부시장, 비키 펠트하우스 독일 라히프치히 부시장,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시장, 모르텐 사예름 스웨덴 라울

발렌베리연구소장이 참여해 각 도시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을 공유한다. 둘째 날인 5일 전체회의에서는 올리비에 드 슈터(Olivier De Schutter-벨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국빈인권특별보고관이 기조발제를 통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극심한 빈부 격차 등에 따른 어려움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도 리자나 콘스탄자 칠레 산안토니오 시장, 호세 쿠에스타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아티아 워리스 UN 외재 및 인권에 관한 독립전문가, 조문영 연세대학교 교수, 오드리 가리노 프랑스 마르세유 부시장 등이 빈곤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인권을 바탕으로 평등을 실현하

기 위한 경로를 모색한다. 5일과 6일에는 지역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주거권, 여성, 청년, 이주민 등에 대한 주제회의도 예정돼 있다. 주거권 주제 회의에선 광주 동구와 서울 영등포구의 쪽방촌 현황과 대안을 논의한다. 여성 주제 회의에서는 광주 여성예술인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사노동의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주민 주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 이주민의 건강상태와 지원 정책 및 한계를, 청년회의에서는 다차원적인 청년의 빈곤상태와 대응방안, 청년부채에 대한 의견 등

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잘레스와리 프라모다와르다니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국방안보인권수석, 싱가포르(Singkawang) 시장 등 인도네시아 도시대표단과 인권단체가 대거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광주포럼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인권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김광수 광주시 인권평화과장은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는 시민의 삶과 연관된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 일자리 어디에... 19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컨벤션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박람회 참여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사이버 보안 위해 민·관·학 합심

22일 목포대 남악캠퍼서서 컨퍼런스...웹 취약점 경진대회 등 다채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의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댄다. 전남도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2023년 제4회 호남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남도와 한국정보보호학회 호남지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가·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30여개 기관이 후원한다. 컨퍼런스에선 정보보안 분야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추계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웹 취약점 경진대회, 대학생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첨예대응-분석 경진대

회,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호남 청소년 해킹캠프가 운영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전남도지사상, 기관장상과 함께 총 1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최신 정보보안 기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남-광주사이버보안협의회,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해커 박찬암 스티디인 대표의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명장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관·학 각 최선 기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훌륭한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시장 "활력 넘치는 동구 만들겠다"

자치구 소통의날...지산IC 등 현안 설명·지원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동구 조성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동구청에서 '자치구 소통의 날'을 열고 "동구는 출생률이 높아지고 청년과 초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일대를 찾는 유동인구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희망적"이라며 "원도심 활성화 등 활력 넘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동구 주민 300여명과 시·구정 현안에 대해 소통했으며 지산나들목(IC) 진출입로와 복합소방물 추진 사항, 57년 만에 열리는 무등산 정상개방 등 시장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구민이 요청한 정책 수립 등을 약속했다. 동구 주민들은 이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광주

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공지능 헬스케어 복합센터 조성, 동구청 부설주차장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노후 교량시설 보수보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다"며 "소통의 자리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가 되도록 동구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치구 소통의 날'은 자치구별 현안에 따라 시기와 장소를 협의해 광산구(4월24일), 서구(5월26일), 북구(6월2일), 남구(9월12일), 동구(9월18일) 순으로 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본선에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통합돌봄 사업이 국제적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중국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 본선에 진출했다. 전 세계 198개 도시 274개 우수정책 가운데 15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개가 본상을 받게 되며 오는 12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은 도시혁신 성공사례를 발굴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경진대회로 2012년 제정됐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가사, 식사, 동행 등 7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고택·종갓집,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곡성·보성 등 5개 군 공모사업 선정...관광 활성화 기대

문화재청의 '2024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전남도내 5개 군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해 지역 중화문화 발전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곡성 제호정 고택의 '개그맨 전유성과 21세기 곡성 제호정 인문학당' ▲보성 이진래 고택의 '차 소리 멋이 깃든 이진래 고택의 매력'의 인문학 이야기 ▲장흥 '남도의 고택 민가 정원 속으로'의 사색(四色)정원, 사색(思索)산책에 대한 이야기 ▲강진 '더샵 252 영랑생가! 영랑생가의 건축적 특성 이야기' ▲영광 매간당 고택의 '이효재와 함께 효자 낚는 전통혼례식'이다. 모두 각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인 고택·종갓집의 의식주, 의례, 역사,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는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전남에선 4개 사업이 선정돼 나주, 곡성, 강진, 영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고택·종갓집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장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 전라남도 대표축제 Jangseong 장성군축제위원회

2023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토 일 10. 7. - 10. 15. 장성 황룡강 일원

나들이객 맞이 10. 16. - 10. 22.